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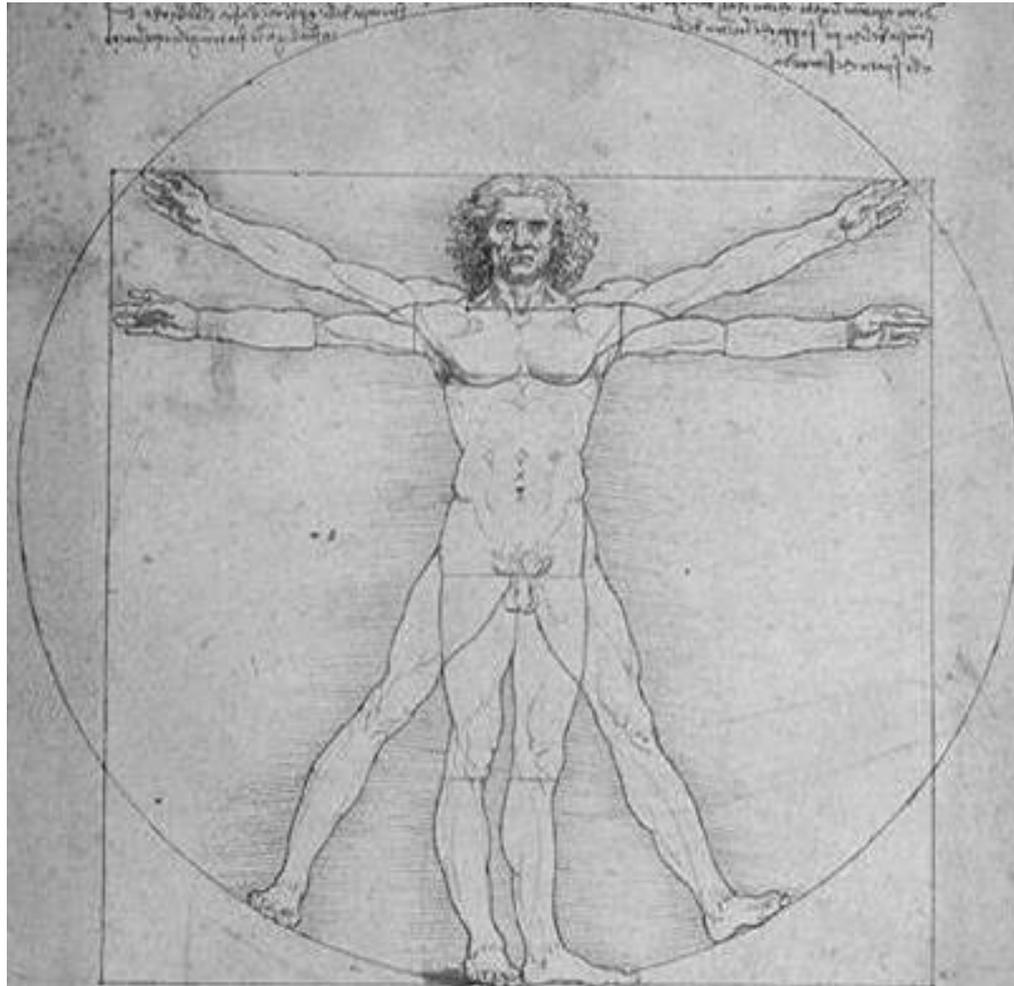
인문학으로 보는  
창의적 상상력의 원리와 활용

# Neo-Renaissance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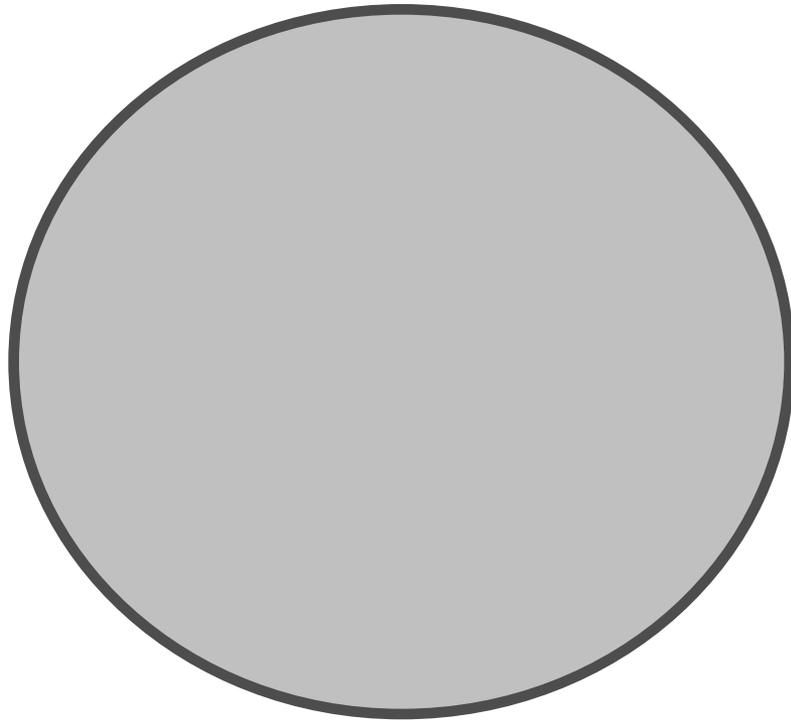


첨단 미디어 네트워크가 새로운 Nature\*가 되고,  
지식과 정보가 우리 주위를 도도한 대양처럼 떠도는 21세기.  
한 분야의 기능적 전문가보다는 전인적 인재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Nature : 인공에 대한 자연, 환경으로서의 자연, 인간과 동물, 사물의 본성을 의미한다.



**자기 인식=지식과 지혜를 얻는 열쇠**



**A**

self-confident는 능력에 한정되어 사용.  
그러나 self-esteem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  
self-confident란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  
즉 계획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self-esteem에서 esteem은 평가하는 것을 의미.  
특히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비교를 멈추자 구별되기 시작했고, 최고를 포기하자 유일한 길이 열리고,  
상품임을 거부하자 작품으로 변해갔고, 경쟁을 피하자 진정한 승리를 맛보았고,  
업(業)에 주목하자 직(職)이 손 내밀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김정태(UN 거버넌스센터 홍보담당관)

나는 그대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에 놓았으니,  
그대는 더욱 기꺼이 그대 주변에 눈을 돌려 존재하는 것들을 보라.  
나는 그대를 천상에도 지상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였으니...  
그대는 스스로 자신을 형성하고 극복하라.

-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Oratio de hominis dignitate*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세상에 돌도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라.

-마가렛 미드

# ‘기델 율타리가 없는’ 思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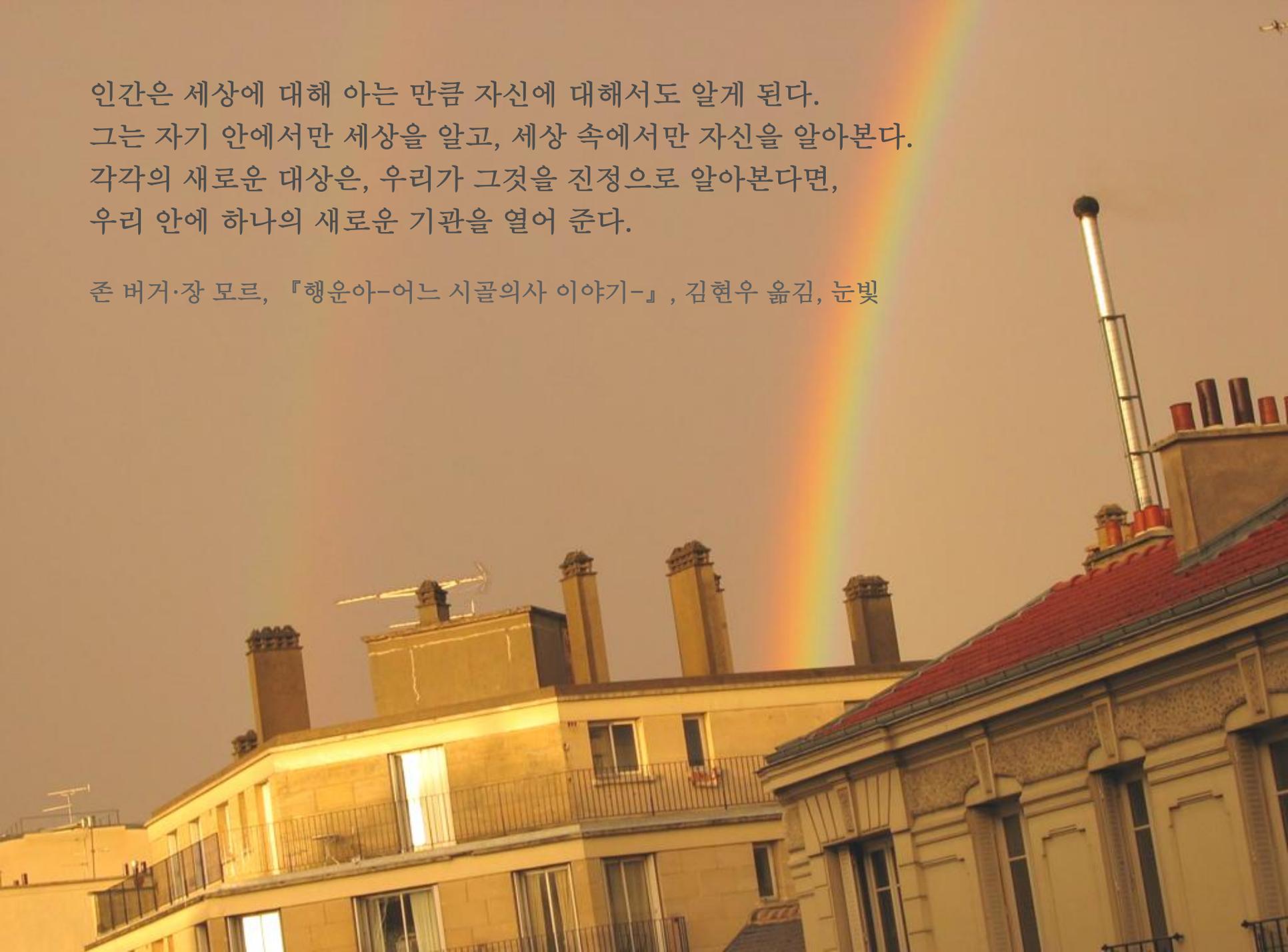
*Hannah Arendt*

“용기와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충실,  
이 셋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미덕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실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된다.”

‘반항’ , ‘집중력’ , ‘목표 지향성’ ,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추구’ , ‘절대적인 단호함’

인간은 세상에 대해 아는 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그는 자기 안에서만 세상을 알고, 세상 속에서만 자신을 알아본다.  
각각의 새로운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의 새로운 기관을 열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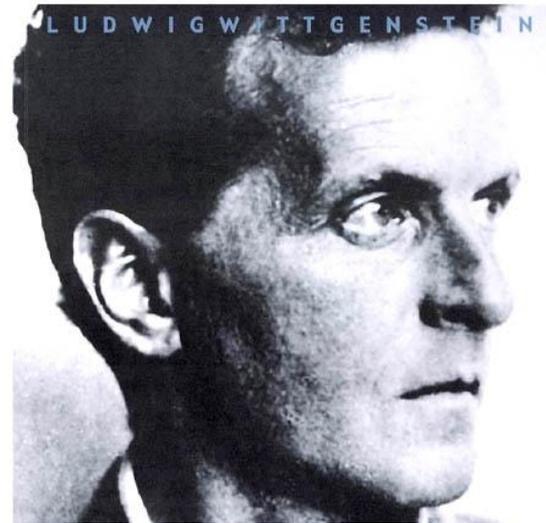
존 버거·장 모르, 『행운아-어느 시골의사 이야기-』, 김현우 옮김, 눈빛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의문들이야.”

- 영화 <매트릭스> 중에서



## Ludwig Wittgenstein

“나 외에 아무도 나에게 모자를 씌울 수 없듯이,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생각해 줄 수는 없다.”

- 코페르니쿠스나 다윈 같은 사람의 진정한 공로는  
참된 이론의 발견이 아니라 비옥한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다.
- 용기는 언제나 독창적이다.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씨앗은 재주 있음이나  
심지어 영감이 아니라, 용기이다.
- 깊은 잠과 얇은 잠이 존재하는 것과 정말 비슷하게도,  
깊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표면에서 출썩거리는 사고가 존재한다.
- 당신을 믿으라! 그건 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외부의 인상이 그에게 불러일으킨 유쾌함이나 불유쾌함의 감정을 수용하는 선까지만 의식이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 감각을 확장시켜 대상의 형상과 특질을 의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사물의 이미지를 포착할 뿐만 아니라 관념화 또는 개념화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열려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닌 개념들을 개념화하기까지 한다. 즉, 자신의 사유 행위 자체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의식이란 ‘존재’의 한 양상이 아니라 ‘앎’의 한 양상이다.

-Samuel Taylor Coleridge, <상상력, 그 비밀을 찾아서>, 장경렬 옮김.



# “우리는 항상 다른 곳을 사유한다.”

-Montaigne-

입장을 바꿔 다른 관점을 취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이를 즐겨야 한다. 요컨대 잠시 자기 자신을 떠나 반성적인 사유에 잠겨보라는 말이다.

그러한 반성적 사유 역시 쉬지 않고 움직이기는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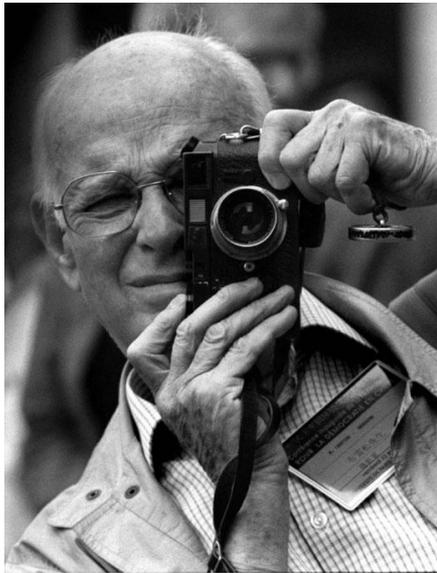
몽상이나 연상작용과도 유사한 이러한 사유는 감각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잇는 ‘띠’라고도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난 다음에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

지평선을 향해 걸어가면서 다른 지방을 발견하고, 안도감을 선사하는 안락한 관습과 풍습을 벗어던져야 한다. 그래야만 관념에 젖지 않고, 확신을 가장한 착각에 매몰된 여러 가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니콜 라피에르, 『다른 곳을 사유하자』, 이세진 옮김, 푸른숲 刊

“같은 것을 여러 번 보는 일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보게 해준다.”

-존 업다이크-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정작 해야 할 것은 그 보는 작업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가벼워서 안 된다는 사실이다.”

*Henri Cartier-Bresson*

‘스스로 보아야’ 한다. 아이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직접적인 앎’이며, “순가락은 없다.”

“이성은 사물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상력은 사물의 유사성을 존중한다.”

- *Shelley*



최고의 지성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고 작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스콧 피츠제럴드

‘if’ ...



## René Magritte

그는 익숙한 우리의 감각을 뒤집고  
관습을 거부하며 실제의 세계를 시험하면서,  
매우 창의적인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며 지내려고 하였다.**  
그에게 회화란 존재의 평범함에 대항하는  
영원한 반란이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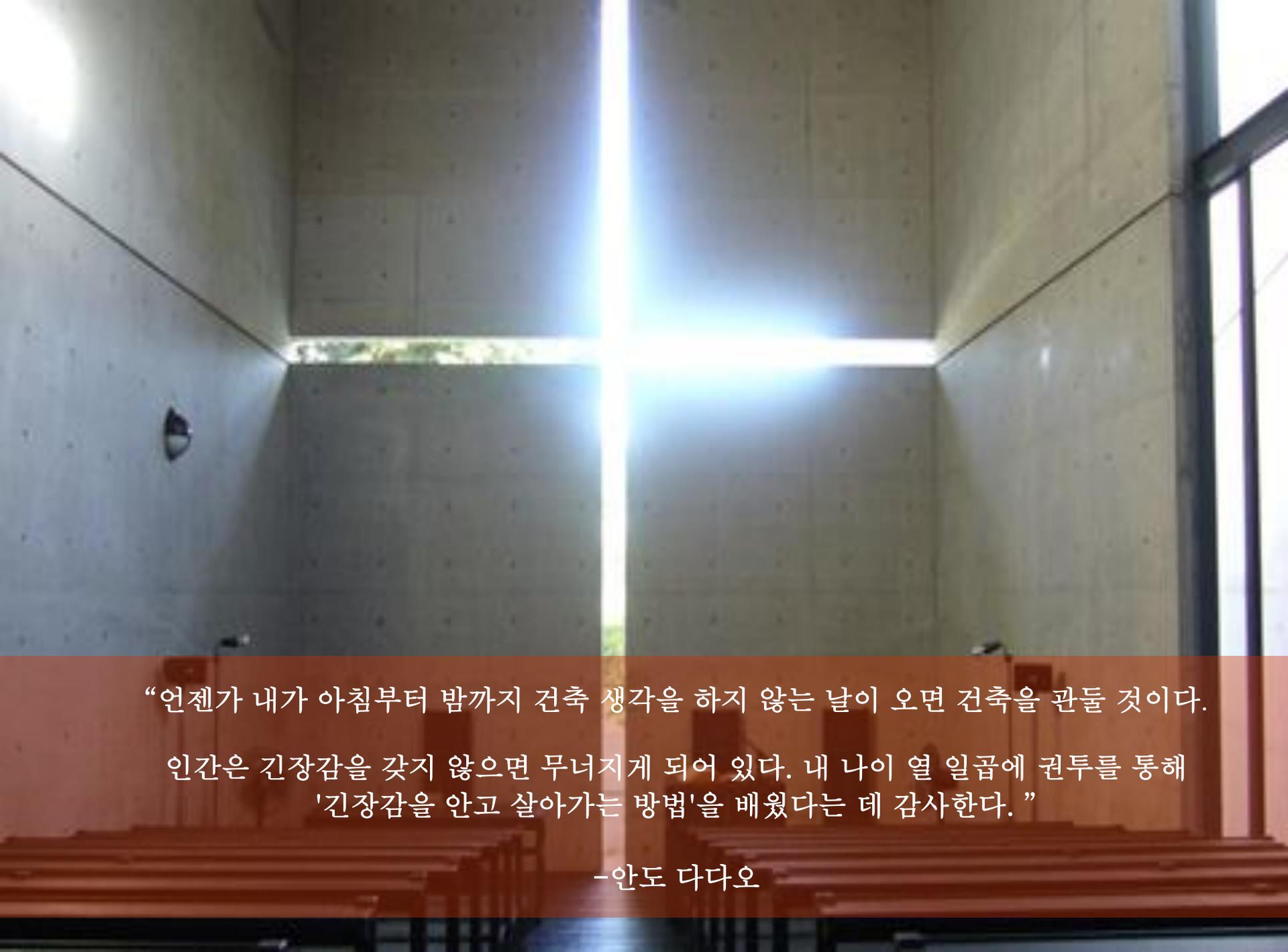
“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는  
우리 사고의 역사적 과정과 달리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문제의 전혀  
새로운 측면을 보게 된다.”

-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 밀도 높은 시간, 배수진(背水陣)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 몽테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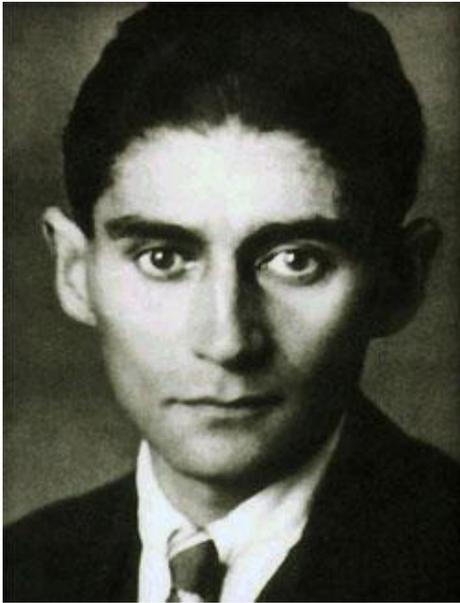
“언젠가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건축 생각을 하지 않는 날이 오면 건축을 관둘 것이다.

인간은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내 나이 열 일곱에 권투를 통해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데 감사한다.”

-안도 다다오

“성급함은 깊이 있는 성숙에  
어긋나는 결함이다.”

- Maurice Blanchot-



모든 죄를 파생시키는 두 가지 주된 인간적인 죄가 있는데,  
다름아닌 **조바심**과 태만이다.

조바심 때문에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어찌면 주된 죄는 오로지,  
조바심 한 가지인지 모른다.

조바심 때문에 인간은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Franz Kafka*



# ‘벽창호’ 가 되지 맙시다!

바보(idiot)란 완벽하게 '사적(私的)인 인간'을 의미한다

아랍어로 어리석음은 귀 기울이지 못함을 뜻한다. '어리석음absurdity'에서 핵심 단어인 'surd'는 수학적 불합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라틴어 surdus(귀먹거나 병어리인)에서 왔고, 또 이것은 '귀먹은 뿌리'를 의미하는 아랍어 jadr asamm을 번역한 말이며, 이것은 다시 '병어리의 혹은 비합리적인'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alogos를 번역한 말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땅 속에 묻힌 뿌리처럼, 세상의 일상적 교류에서 차단된다.

—다이앤 애커먼 지음, 『감각의 박물관』, 백영미 옮김, 작가정신



“명성 없는 명예,  
광채 없는 위대함,  
보수 없는 위엄”

*-Walter Benjamin*

거품 같은 명성이 너를 옆길로 들게 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망각되는지,  
얼마나 깊은 시간의 심연이 우리 앞에 있었고 우리 뒤에 올 것인지,  
갈채란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좁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라.

-몽테뉴

## 단조, 진부함 Platitude

(명사) 대중문학의 기본이자 영광스러운 요소.

연막을 피워 올리는 단어 속에서 졸고 있는 사상(思想).

굽벙이의 언어로 표현한 수백만 바보들의 지혜.

인공적인 암석 속의 화석화된 감상.

우화가 없는 윤리.

과거 진실 속의 모든 필멸성.

우유와 도덕을 넣은 식후의 커피 한잔.

깃털 없는 공작의 궁둥이 요리.

사상의 해변에 밀려와 말라 죽은 해파리 한 마리.

알 속에서 살아남아 짹짹거리는 거위.

생명력을 잃은 경구.

- 앰브로스 비어스, <악마의 사전> 유소영 옮김, 정민미디어 판



## *Susan Sontag*

아름다움에 평생 깊이 헌신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는  
다른 어떤 진지함으로도 흉내 낼 수 없다.

아름다움은 자연 그 자체, 곧 인간과 인간이 만든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고 충만한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깊이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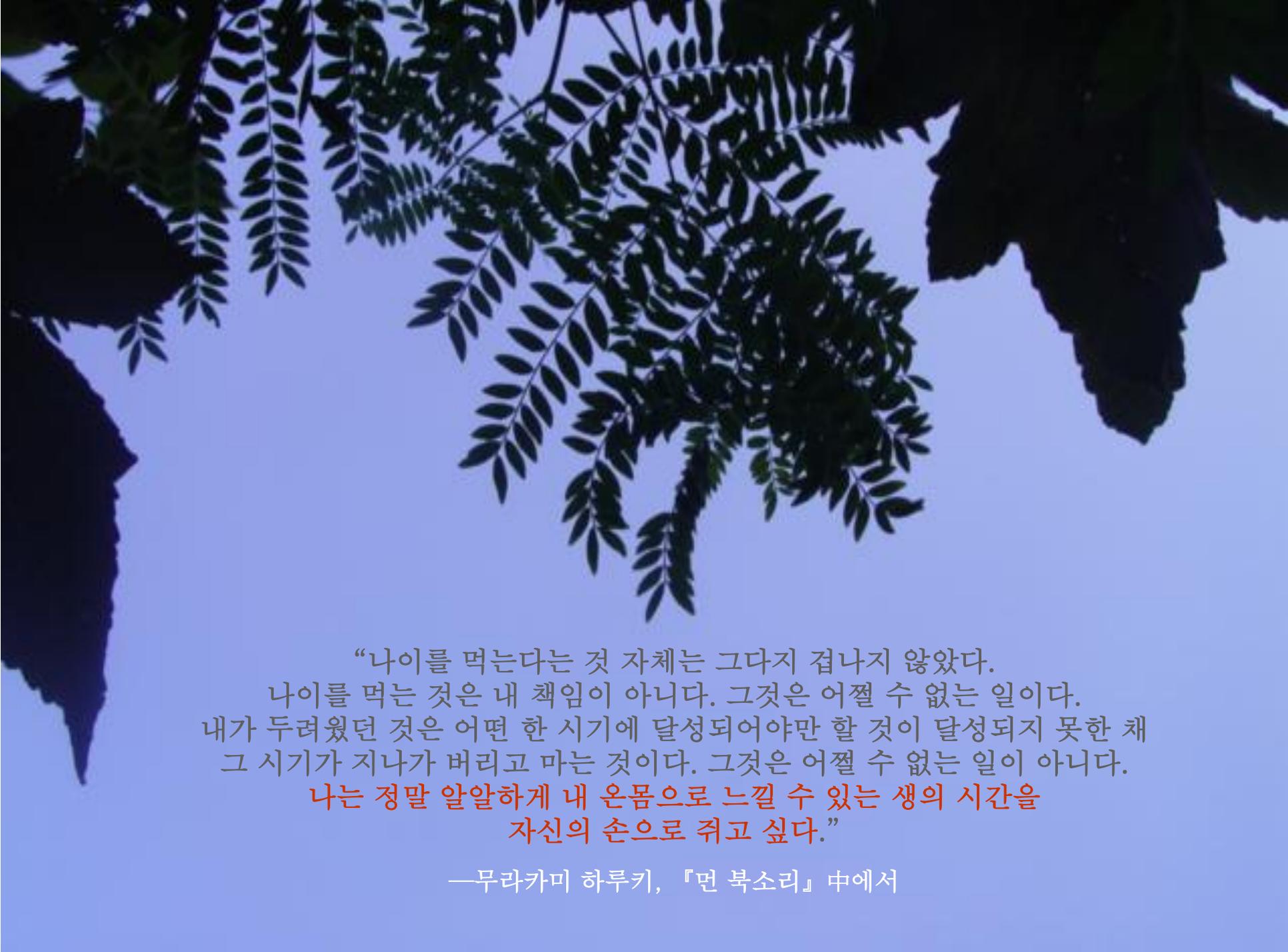
— 수잔 손택, 『문학은 자유다』, 홍한별 옮김, 이후 刊



### 숭고(崇高 das Erhabene)란

종교적, 윤리적 그리고 미학적 의미의 크기나 위대함(das Große)을 뜻하는 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을 현세적이고 유한한 존재의 한계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표상하거나 예감하게 해주는 것이다.

—J. Hoffmeister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겁나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어떤 한 시기에 달성되어야만 할 것이 달성되지 못한 채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나는 정말 알알하게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의 시간을  
자신의 손으로 쥐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먼 북소리』 中에서



## “온 우주는 변화이고, 인생은 의견이다.”

공허한 주제에 관하여 글을 쓰지 않고, 훈계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한 문체로 편지를 쓰고, 책을 읽을 때는 정독을 하고,  
피상적인 사고로 만족하지 않고, 수다쟁이들에게 서둘러 동의하지 말자.

자신의 경험과 교습 능력을 자신의 재능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남을 가르칠 때 조급해 하지 않는다.

남의 흠을 들추지 않고, 대답이나 진술이나 또는 표현이 아니라  
사항 자체에 대한 공동의 고찰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적절히  
일깨워줌으로써, 올바른 표현을 재치 있게 일러주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친구들이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밝힌다.

네 생각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마라. 수다를 떨지 말고, 일을 많이 벌이  
지 마라. 똑바로 서야지, 똑바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공동체적 이성에서 달아나는 자는 도망자이다. 이성의 눈을 감는 자는  
장님이다. 남에게 의존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갖고 있지  
못한 자는 거지이다. 일어난 일들에 불만을 느낌으로써 공통된 자연의  
이성에 등을 돌리고 물러서는 자는 우주의 부스럼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천병희 옮김, 숲 刊

‘사이’의 사유와 ‘너머’에의 꿈

